

워즈워스의 “숭고한” 공화국 : 스위스 신화의 정치학

박 찬 길

이 골짜기의 꼭대기 쪽에는 양치기와
농부들이 사는 완벽한 공화국이 있다.
(워즈워스, 『호수지역 안내서』 2장)

Towards the head of these Dales was
found a perfect Republic of Shepherds
and Agriculturists(Wordsworth,1974 206).¹⁾

1. 서론: 워즈워스의 변절과 스위스 신화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는 프랑스혁명을 노래한 시인으로 유명하다. 그가 『서곡』(*The Prelude*)에서 “그 (역사의) 여명에 살아있었다는 것만도 큰 기쁨이었다. 더구나 그때 젊음이었다는 것은 천상의 축복이었다!”(Bliss was it in

1) 1835년에 간행된 『호수지역 안내서』(*A Guide through the District of the Lakes*, Wordsworth, 1974 vol 2 151-250)는 1810년에 간행된 조지프 윌킨슨(Joseph Wilkinson)의 『컴벌랜드, 웨스트모어랜드, 랑카셔의 몇 가지 풍경들』(*Select Views in Cumberland, Westmoreland, and Lancashire*)이라는 판화집의 해설로 처음 출간되었고, 1835년까지 여러 가지 다른 제목들로 재간행되었다. 여기서는 Owen과 Smyser가 편집한 워즈워스 산문집 (Wordsworth 1974) 2권에 실린 1835년판을 인용했으며, 이하에서 『안내서』라고 지칭함.

that dawn to be alive,/But to be young was very heaven!, Wordsworth, 1971 440, 10권 693-94행)²⁾고 회고한 것은 프랑스혁명에 대한 당대 유럽 지식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가장 전형적으로 담고 있는 구절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워즈워스를 혁명의 시인으로 각인했다. 하지만 그가 회고했던 그 순간은 워즈워스가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훨씬 전이었고, 그를 시인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던 『서정담시집』(*Lyrical Ballads, Wordsworth, Butler, and Green, 1992*)이 처음 나왔던 1798년은 워즈워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지식인들이 혁명의 결과와 그 진전 방향에 크게 좌절했던 때였다. 사실상 시인 워즈워스는 혁명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그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기대와 실망이 그의 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통상적인 답변은 혁명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이 그의 시적 천재가 발휘되기 위한 조건이었고, 이러한 좌절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의 위대한 시편들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른바 워즈워스의 ‘위대한 10년’³⁾ 설에 의하면, 그가 28세였던 1798년부터 1808년까지 대략 10년 동안 그의 ‘주된’ 작품들 대부분이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워즈워스는 1850년까지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문학적 명성은 이른바 ‘위대한 10년’ 이후에 오히려 점점 커졌고, 나폴레옹전쟁 이후에는 ‘국민시인’으로 추앙받으며 말년을 보냈다. 하지만 이른바 ‘위대한 10년’ 이후에 보여준 그의 보수적인 정치적 행보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과 분노에 빠뜨렸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의 일부 학자들은 당대 인물들이 표출했던 실망과 분노의 맥락을 공유하면서 그의 후기시 뿐만 아니라 ‘위대한 10년’에 산출된 주된 작품들조차도 역사적 현실을 외면하는 “낭만적 이데올로기”의 반영일 뿐이라고 폄하하거나(McGann 81-92), 그의 대표작에 이미 ‘변절자’의 위선과 자기정당화가 구조적으로 내재되어있다고 비판했다.⁴⁾

이들과 비교해볼 때 톰슨(E.P. Thompson)의 입장은 독특한 면이 있다. 영국

2) 이하 『서곡』의 모든 인용은 1805년판에서 함.

3) 이에 관한 최근의 논의로는 Kaey의 책 1-20 참조.

4) 키어난(V.G. Kiernan) 같은 정통 마르크스주의 비평가(Kiernan 96-128), 레빈슨(Marjorie Levinson) 같은 신역사주의 비평가(Levinson 1-13), 세일즈(Roger Sales) 같은 전통적인 역사주의자(Sales 52-69)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노동계급형성의 역사를 확립한 ‘좌파’ 역사가이고, 공적인 인물의 정치적 변절에 대해 누구 못지않게 혹독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 학자지만 유독 워즈워스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온정적이다. 톰슨은 유명한 「환멸이나 변절이나? 한 문외한의 강론」(“Disenchantment or Default? A Lay Sermon”)이라는 글에서 워즈워스의 정치적 입장변화를 당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매우 섬세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Thompson 33-74), 그는 여기서 시인의 정치적 입장과 문학적 업적을 단순하게 연결하지 않는다. 톰슨도 워즈워스가 결국에는 “변절”했고, 이것이 그의 시에도 치명적이었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위대한 10년’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 시기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모든 시적 기획이 시인의 허위의식이나 자기기만일 뿐이라고 쉽게 단언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톰슨이 워즈워스의 ‘변절’ 자체를 부인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1818년에 나온 『웨스트모어랜드의 독립자영농들에게 보내는 두 개의 연설문』(*Two Addresses to the Freeholders of Westmoreland*, Wordsworth, 1974 vol 3 149-93)⁵⁾은 워즈워스가 완전히 지주 귀족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며, 톰슨 역시 이 단계의 워즈워스를 변절자로 부르는 것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다. 다만 나폴레옹으로 대표되는 당대의 프랑스를 거부한다는 것과 프랑스혁명의 공화주의 이념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 그리고 현실의 역사에서 실현될 수 있는 공화주의에 대해 회의를 갖는 것과 공화주의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다. 전자가 “환멸”(disenchantment)의 단계라면, 후자는 “변절”(apostasy)의 단계이고, 워즈워스의 경우 “환멸”의 단계가 일반적인 평가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으며,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그의 시적 창조성이 변함없이 발휘되었다는 것이 톰슨의 주장이었다(Thompson 37). 물론 “환멸”과 “변절”이라는 규정 자체에 당연하게 전제되어있는 정치적 당파성, 또 시인의 정치적 견해와 시적 창조성 사이에 설정된 직접적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톰슨의 워즈워스론에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평가가 당대 역사에 대한 구체

5) 이하에서는 『연설문』으로 지칭함.

적인 사실 탐구를 통해 워즈워스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lived experience, 34)⁶⁾을 면밀하게 복원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워즈워스의 정치적 입장변화를 가늠하고 있기 때문이다. 톰슨은 워즈워스의 보수화 혹은 변절이라는 사실을 그것대로 정확하게 직시하면서도 그의 지식인으로서의 진정성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고뇌 안에서 그가 이룩해낸 그 나름의 문학적 성취를 그것대로 인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판적인 평자들은 워즈워스가 1803년에 귀족 친구의 도움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스스로 지주의 신분이 된 것(Lucas 106), 1813년에 인지발행인(a Distributor of Stamps)이 된 것(Gill 296), 그리고 1818년 선거연설문을 변절의 분명한 표현으로 본다. 하지만 톰슨은 변절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워즈워스의 변절을 조롱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40년 동안 참담한 일이었다. 하지만 조롱보다 덜 쉬운 일은 그 앞의 15년 동안 내내 “아름다운 계절들은 여전히 돌아올 것이며, 그만큼 아름다운 희망도 마찬가지로”라고 말할 정도의 큰 자신감을 어떻게 유지했는지를 가늠하는 일이다(필자 강조).

It is easy enough to make fun of Wordsworth's apostasy, which was in some senses abject, in his last forty years. What is less easy is to conceive **how** he upheld, through all the preceding fifteen years, so great a confidence that 'fair seasons yet will come, and hopes as fair(62, my emphasis).

이 논문은 워즈워스의 정치적 변절의 문제를 그의 공화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워즈워스의 전성기 전반에 걸쳐서 일어난 그의 정치적 입장변화를 현대의 이념적 스펙트럼(spectrum)에 따라 정치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심판하기보다는 톰슨의 진솔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워즈워스의 정치적 변심의 와중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던 역사적 낙관론의 실체를 시인 자

6) Williams의 책 Part I Chapter II 57-88 참조

신의 맥락에서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워즈워스는 프랑스의 공포정치와 루이 16세의 처형을 목격한 이후에도 폭력의 당위성과 공화제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던 강경파 공화주의자였다(박찬길, 2011 69-96). 그런 워즈워스가 25년이 지난 1818년에는 자기 집안을 풍비박산 냈던 바로 그 로우더(Lowther) 집안을 위하여 자신의 고향과 같은 곳에는 로우더와 같은 토착지주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것이다(Gill 34-35, 330). 이 글에서는 워즈워스의 정치적 변절에 대한 도덕적 단죄를 잠시 보류하고, 톰슨이 마지막으로 제기했던 매우 단순한 질문을 다시 던져보려고 한다: 워즈워스는 실망과 좌절로 점철된 청장년기를 보내면서도 “어떻게” 그토록 긍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었을까? 시인 자신이 『서곡』을 비롯한 일련의 시적 성장서사를 통해 제시한 답은 이른바 시적 자아의 ‘성장’이었다. 자연이 자신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자연 속에서 “인류의 고요하고 슬픈 음악”(the still, sad music of humanity, 「틴턴 사원」 “Tintern Abbey” 92, Wordsworth, 1992 118)을 읽어낼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시인의 자아가 자연과 합일되는 경험을 통해 그 모든 것에 적용되는 자연의 원칙을 체득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깨달음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낙관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793년에 시인이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뻔히 아는 현대의 독자들에게 과연 이러한 설명이 여전히 설득력이 있을까?

워즈워스의 공화주의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그 연구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랜다프주교에게 보내는 편지』(*A Letter to the Bishop of Llandaff*, Wordsworth, 1794 vol 1 29-49)⁷⁾나 『서곡』에 나타난 공화주의적 요소들의 이념적 좌표를 ‘식별’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다.⁸⁾ 그러한 연구들은 특정한 문헌의 특정한 공화주의에 대한 설명일 뿐, 워즈워스의 공화주의적 열정이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지는 못했다. 가령 1798년 프랑스가 스위스를 침공한 이래 시인의 이념적 지평에서 사라졌던 자유, 독립, 국민주권론 등 ‘과격한’ 공화주의적 주장이 1808년에 나온 『쾨트라조약에

7) 이하에서는 『편지』로 지칭함.

8) 최근의 예로는 워즈워스의 공화주의와 마키아벨리(Machiavelli)의 관계를 분석한 Hill의 논문 참조

관하여』(*Concerning the Convention of Cintra, Gravid 65-222*)⁹⁾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로부터 조금 지난 다음에 나온 『안내서』에서 그의 고향 호수지역에서 발견했던 정치적 낙원을 굳이 “양치기와 농부들의 공화국(필자강조)”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패트릭 빈센트(Patrick Vincent)의 최근 연구들¹⁰⁾은 “공화주의자” 워즈워스에 관해 새롭게 일깨워주는 바가 있다. 그에 의하면, 워즈워스의 공화국은 처음부터 스위스를 모델로 하고 있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대 역사 속의 현실적인 스위스가 아니라 윌리엄 텔(William Tell)의 전설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스위스 신화”가 워즈워스적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모형이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스위스 신화에 대한 빈센트의 역사적 연구를 원용하여 공화주의자 워즈워스의 변절과정을 구체적으로 재검토한다. 이러한 재검토는 워즈워스의 변절을 정치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용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이념적 진화과정을 관통하는 워즈워스 자신의 논리를 좀 더 섬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이 글에서 제시하려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워즈워스의 공화주의적 이념들은 일정한 순간(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스위스를 침공했던 1798년)에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변화에 따라 달리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그렇다고 해도 그 공화국들이 내용상 동일한 것은 아니며, 그러한 변화들이 정치적 보수화가 아닌 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보수화가 진행되면서도 그의 공화주의적 꿈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이 글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답은 한마디로 스위스의 ‘영국화’이다. 워즈워스의 보수화는 스위스 신화의 이상적 공화국이 ‘영국’으로 ‘전유’되는 과정이었

9) 이하에서는 『쾨트라조약』으로 지칭함.

10) 스위스 신화에 관한 빈센트의 연구는 “송고”의 미학과 공화주의적 관점을 결합하여 워즈워스를 읽는데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 특히 2023년에 출판된 『낭만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스위스 신화』(*Romanticism, Republicanism, and the Swiss Myth*)는 지난 수년간 나온 논문들을 바탕으로 한 결정판인데, 이 글은 그의 역사적 연구에 많이 빚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가 제공한 광범위한 1차 자료와 워즈워스의 다양한 원문을 함께 분석하면서 공화주의자 워즈워스의 1790년과 1798년 이후를 비교하면서 그의 정치적 변절의 문제를 재검토하고자 했다.

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곡』에 나오는 결정적인 두 장면의 설정이 새삼스럽게 흥미롭다. 워즈워스 연구에서 흔히 “워즈워스적 숭고”(Wordsworth’s Sublime)(박찬길, 2021 24-35)라고 지목되는 『서곡』 6권의 생쁠롱 계곡(Simplon Pass) 일화가 결국 13권의 스노우돈(Snowdon)산의 등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서곡』이 말하고자 하는 시인의 정신적 성장은 결국 『서곡』 6권에서 설명한 알프스의 숭고한(sublime) 경치에서 촉발되었지만, 그러한 성장을 완성시키는 것은 스노우돈(Snowdon)이라는 영국(더 정확하게는 웨일즈[Wales]이긴 하지만)에서의 숭고였기 때문이다. 『서곡』의 서사를 결정적으로 진전시키고, 마침내 그것을 완성시키는 숭고(박찬길, 2021 31-63)의 지리적 배경이 스위스에서 영국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공화국’으로 표상되는 워즈워스의 정치적 이상주의의 향방을 지시하는 거대한 이정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위하여, 먼저 18세기 영국의 스위스 신화와 그 정치적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 다음에는 톰슨이 말했던 “그 앞의 15년” 동안 쓰여진 워즈워스의 글들 중 공화주의와 관련된 몇몇 시와 산문들을 스위스 신화와 연관하여 분석한다. 1793년에 출판된 『사실적인 소묘』(*Descriptive Sketches*, Wordsworth 1984 36-118)¹¹⁾와 1808년에 출판된 정치적 산문 『쾨트라조약』, 그리고 1810년에 쓰기 시작한 『안내서』는 모두 각각 다른 ‘공화국’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공화국’들은 모두 알프스의 ‘숭고한’ 자연을 배경으로 한 ‘산속 공화국’에서 비롯되었는데, 이것들은 워즈워스의 정치적 보수화가 심화되면서 결국 영국 호수지역(Lake District)의 이상적 공동체로 수렴된다. 이러한 스위스의 영국화가 워즈워스의 정치적 변질의 과정이며 실체이다.

2. 18세기 영국의 스위스 신화

스위스는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매우 특별한 나라로 인식되었다. 백과사전과의 일원인 프랑스의 의사 루이 드 조꾸르(Louis de Jaucourt)는 스위스에서 발간

11) 이하에서 『소묘』로 지칭함.

된 『이베르동 백과사전』(*Encyclopedia of Yverdon*)에 기고한 “스위스” 항목에서 스위스인을 “자유민”으로 묘사했다. 이들의 자유는 오랜 투쟁을 통해 쟁취된 것인데, 특히 14세기에 얼마 되지 않는 농민군을 조직하여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Habsbourg)왕가의 대군을 물리쳤던 윌리엄 텔의 이야기는 스위스를 독립과 자유의 상징으로 만든 정치적 신화의 출발점이었다. 스위스는 험준한 산악지형이어서 생활환경은 열악하고 가난했지만, 소규모의 자족적이고 독립적인 주(洲, Canton)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나라였고, 그 주들은 각각 하나의 국가와 같았다. 즉 주 하나하나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처럼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완벽한 ‘공화국’이었다는 것이다. 백과사전에서는 이러한 공화국의 특징적 요소로 “참여적인 시민, 자기방어 능력, 그리고 고대 공화국에 대한 기억”을 들고 있다(Baiao 1). 스위스 민주주의를 연구한 레르너(Marc Lerner)는 이 ‘공화국’들의 자유를 “자율적 정부, 집단적 안보, 국민주권, 자치, 외국 통치자로부터의 독립, 강제 없는 자유, 법에 의한 통치 혹은 정부의 간섭 없는 자유”(self-rule, collective security, popular sovereignty, autonomy, independence from foreign rulers, freedom from coercion, rule by law or freedom from government interference)라고 설명한다(Lerner 4-5, 14). 이러한 스위스 신화의 특징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은 그 지리적 배경, 즉 스위스의 알프스(the Alps)였다. 알프스의 험준한 산악지형은 당대의 유럽인들에게 이른바 ‘숭고한’(sublime) 경치의 전형이었고, 그들에게는 그러한 경치가 가져다주는 “숭고”(the sublimity)의 경험이 그 자체로 최고의 미학적 가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최상의 인간성, 그리고 최고의 도덕적 가치가 실현되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냈다(Duffy1-27). 즉 알프스의 미학적 숭고는 완벽한 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숭고의 기반이었다는 것이다.

빈센트에 의하면, 스위스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간주하는 관점은 15세기 후반에 특권계급의 이해관계를 위해 처음 등장했다(Vincent, 2023 22). 이것을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개혁적 이념으로 발전시킨 것은 18세기의 개신교 지식인들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알브레히트 할러(Albrecht von Haller)였다. 할러는 자기와 같은 스위스인들을 “축복받은”

민족으로 찬양한다. 알프스의 숭고한 자연이 삶의 터전으로서는 가혹한 조건이지만, 그 자연은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에 똑같이 작용하는 자연의 법칙을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선생이며, 그런 선생 덕분에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터득했다는 것이다(Haller 18). 스위스 베른(Bern)의 부유한 상인계급 출신이었던 할러는 알프스의 숭고한 자연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를 찬양하면서, 그러한 자연이 만들어내는 도덕적 삶의 방식이야말로 자신의 고향에 만연했던 정치적 억압과 자본주의적 탐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Cleve 383-87). 알프스에 대한 할러의 이러한 찬사는 단번에 동시대 유럽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이 시를 통해 알프스의 목동들은 “자연 속의 원시적인 민주주의자”(nature’s primitive democrats)로 변신했다(Shama 480). 알프스의 산골 마을을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이상적 공동체로 그려낸 할러의 묘사는 루소(Jean Jacques Rousseau)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루소는 당대의 유럽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소설 『줄리 혹은 신 엘로이즈』(*Julie; or, The New Heloise*, Rousseau, 1997)(1761)¹²⁾를 통해 대중들의 마음속에 스위스를 이상적 공화국의 전형으로 각인했는데, 그 핵심도 역시 스위스 알프스의 숭고한 경치가 숭고한 공동체, 즉 작지만 이상적인 공화국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스위스와 알프스에 대한 이러한 신화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가령 1688년에 이탈리아 알프스를 등반했던 존 드니스(John Dennis)는 그가 지나갔던 에구벨레트 산(Mount Aiguebellette)의 험준한 지형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중에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에 의해 숭고의 특징으로 규정된 “즐거운 공포, 끔찍한 기쁨”(a delightful Horror, and a terrible Joy)라고 묘사했고, 1710년 4월 20일자 『태틀러』(*The Tatler*)161호에 실린 산문에서 조지프 애디슨(Joseph Addison)은 자신의 상상 속 알프스에서 “낙원”(a Paradise)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 “낙원”은 자기가 평생에 본 경치 중 “가장 보기 좋은 전경”(the most agreeable Prospect)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만년설로 얼어붙은 동토였지만 거기에 “자유의 여신”(The Goddess of Liberty)이 살고 있으며, 그 원

12) 이하에서 『줄리』로 지칭함.

편에는 “공화국의 정신”(the Genius of a Commonwealth)이 “자유의 모자”(the Cap of Liberty)를 쓰고 앉아있었다고 썼다(Addison 399-401). 이것은 17세기 말 혹은 18세기 초반의 영국에서 이미 스위스를 직접 답사하지 않고도 스위스-알프스-송고한 경치-이상적인 공화국을 하나의 즐거리로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스위스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신화가 널리 퍼져있었다는 증거이다(Vincent, 2023 46-80). 하지만 스위스 신화와 관련하여 위즈워스를 포함한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은 역사가이자 목사였던 윌리엄 콕스(William Coxe)였다. 콕스는 1771년부터 1786년까지 귀족들의 유럽 그랜드 투어의 동반자로서 인기가 높았는데, 이때의 경험을 살려서 쓴 기행문이 『스위스의 자연, 내정,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대한 소묘』(*Sketches of the Natural, Civil, and Political State of Swisserland*(1779)와 그 후속작인 『스위스와 그리슨즈 지방 여행』(*Travels in Switzerland, and in the Country of the Grisons*)(1789)¹³)이었다. 콕스의 이러한 스위스 기행문들은 루소의 『줄리』와 더불어 ‘송고한’ 나라 스위스를 영국의 국경 너머로 알렸다. 그의 『스위스의 자연, 내정,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대한 소묘』은 라몽(Louis Ramond de Carbonnières)에 의해 불어로 번역되었는데, 그가 붙인 해박한 주석은 그의 불어 번역본을 영어 원본만큼이나 유명하게 만들었고, 1803년에는 그의 불어 번역본이 다시 영어로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했다(Schama 485). 콕스의 원전이 스위스를 다소 순진하게 정치적 낙원으로 신비화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스위스의 현실에 더 밀착되어있었던 라몽의 번역본은 스위스에 관해 다소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원저자나 번역자 모두 글라루스(Glarus)에서 개최된 ‘민중의회’(Landsgemeinde)를 “장엄하고 경외로운 장관”(a grand and awful spectacle)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했고, 콕스의 책과 그 번역본은 모두 영국인들의 마음에 스위스를 민주주의의 성지로 각인했다. 그런 의미에서 샤마(Simon Shama)는 콕스의 책과 라몽의 번역본을 “정치적 송고에 대한 증언”이라고 평가했다(Schama 486).

13) 이하에서 『스위스와 그리슨즈 지방 여행』을 『스위스 여행』으로 지칭함.

3. 워즈워스의 ‘숭고한’ 공화국

워즈워스는 졸업을 바로 앞둔 1790년 여름에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친구와 함께 유럽여행을 떠났다. 귀족 자제들을 위한 당시의 일반적인 그랜드 투어와는 달리 그의 유럽행에는 매우 강력한 정치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 목적지가 민주주의의 성지였던 스위스였기 때문이다.

대학의 잡무나 공부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었다.
그렇다고 나의 세속적인 이해관계가 중요했던 사람들의 걱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즐기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는 자연이 내 마음의 주권자였고,
강력한 형상들은 젊음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철없는 희망에 허가장을 주었다.
(『서곡』 6권 342-48)

...An Open slight

Of college cares and study was the scheme,
Nor entertained without concern for those
To whom my worldly interests were dear,
But Nature then was sovereign in my heart,
And mighty forms, seizing a youthful fancy,
Had given a charter to irregular hopes
(*The Prelude* VI 342-48)

워즈워스의 여행에는 가장 가까운 누이 도로씨(Dorothy Wordsworth)가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실질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던 맏형 리차드(Richard Wordsworth)도 사전에 알았다더라면 반대했을 것이 명백했다(Wordsworth, 1967 37). 1790년 여름은 졸업시험을 앞둔 시기였고, 시험 결과에 따라 졸업 후의 진로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워즈워스 또한 본인의 장래와 관련하여 그 시기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그런 현

실적인 고려를 “대놓고 무시”하려는 “계획”을 세워 여행을 떠났던 것이다. 그러한 현실적인 고려를 중시하는 대부분의 동급생들이 했던 일은 졸업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대학의 연구원(Fellow)이 되거나 국교의 목사로 임명되는 것이었고, 그 어느 쪽이나 영국의 ‘(권력)체제’(the Establishment)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공화주의자 워즈워스가 그것을 “대놓고 무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체제’의 반대편 끝에 있는 정치적 이상향을 향해 떠나는 일이었고, 그 시점에서 스위스는 가장 이상적인 행선지였다. 따라서 “자연”의 “강력한 형상들”은 물론 눈덮인 알프스의 고산준령이었지만 그것이 불러일으킨 “철없는 희망”은 ‘숭고한’ 자연 안에 있는 ‘숭고한’ 공화국을 향해 가고 싶은 욕망, 스위스 농부와 양치기들에게서 샤마가 말했던 “자연 속의 원시적인 민주주의자”를 발견하고 그들의 마을이 실제로 가동 중인 이상적인 공화국임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을 자기 마음의 “주권자”(sovereign)라고 말한 것이나 그의 “허가장”(a charter)을 받고 떠났다는 표현에 등장하는 공화주의적 울림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워즈워스에게 알프스로 향한 도보여행은 도네이토가 말했던 “공화주의적 자유와 평화의 자연적인 보루”(a natural bastion of republican liberty and peace, Vincent, 2023 22)로의 정치적 순례였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서 자신이 비국교도(nonconformist)이며 공화주의자임을 세상에 공표하는 정치적 몸짓이었다.

워즈워스는 이 여행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첫 출판작이었던 『소묘』를 펴냈는데, 여기에는 ‘숭고한’ 공화국을 향한 워즈워스의 정치적 순례의 흔적들이 흥미롭게 포함되어있다. 813행에 이르는 긴 본문의 대부분은 스위스 알프스의 장엄하고 숭고한 경관을 기술하고 있지만, 스위스의 ‘산속 공화국’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묘사는 그의 여행목적이 매우 정치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언젠가 인간은 완전히 자유롭게, 혼자, 자연 그대로,
 그렇게 축복받아 자유로왔다. 자연이 낳은 아이였으니까.
 그는 신 말고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아무도 제한하거나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고 다녔다.

자신의 이성이 알려주는 것 말고는 어떤 법도 인정하지 않았고
 바라는 것은 모두 했고, 꼭 해야 하는 것만 바랐다.
 천부적인 재능을 이어받아, 영광스러운 조상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림에도 여기에서는 순결한 자연의 가호를 받아
 원초적인 인간의 흔적이 나타난다.
 타고난 품위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고
 숭고한 눈을 가졌으며 사자처럼 사납지만 우아한 자태가 있다.
 짐승들의 왕일 뿐, 누구의 노예도 아니다.
 그는 피리와 책, 그리고 칼을 들고 행진한다.
 그것들에서 자신의 권리를 잘 배웠고,
 그것들로 자신이 누리는 축복을 지킬 준비가 되어있다.

Once Man entirely free, along and wild,
 Was bless'd as free-for he was Nature's child.
 He, all superior but his God disdained,
 Walk'd none restraining, and by none restrain'd
 Confess'd no law but what his reason taught,
 Did all he wish'd, and wish'd but what he ought.
 As Man in his primaeval dower array'd
 The image of his glorious sire display'd
 Ev'n so, by vestal Nature guarded, here
 The traces of primaeval Man appear.
 The native dignity no forms debase,
 The eye sublime, and surly lion-grace.
 The slave of none, of beasts alone the lord,
 He marches with his flute, his book, and sword,
 Well taught by that to feel his rights, prepar'd
 With this “the blessings he enjoys to guard.”(520-35, Wordsworth, 1984
 88, 90)

이 대목은 시인의 직접적 경험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스위스 신화의 주요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선 “자연 속에서 완전한 자유”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산속의 자유”(mountain liberty)¹⁴⁾를 말하는 것인데, 신 이외에는 누구나 평등하며, 누구나 각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제한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할리가 묘사했던 “자연의 원시적인 민주주의자”(Shama 480)로서의 자유이며 오로지 알프스의 숭고한 자연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들은 또한 알프스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바라는 것은 모두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는데, 그것은 이들이 애당초 자연으로부터 “꼭 해야 하는 것만 바라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할리는 이것을 자연이 가르친 “미덕”이며, 그것이 알프스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허영을 넘어서게” 했다고 칭송했는데, 그것이야말로 도시의 자본주의적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게 하는 “산속의 자유”의 핵심이었다. “순결한 자연의 가호”는 루소가 쓴 『줄리』의 샹프레가 자세히 묘사한 알프스의 깨끗한 자연환경이 가져오는 영향을 말한다. 알프스의 주민들은 “순결한 자연”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장엄하고 숭고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장엄하고 숭고한 성격”을 워즈워스는 여기서 “숭고한 눈”과 “우아한 자태”를 가진 “원초적인 인간의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영광스러운 조상의 모습”은 물론 오스트리아의 침략군을 소수정예의 민병대로 물리친 윌리엄 텔과 네펠스전투(Battle of Näfels)¹⁵⁾에서 눈부신 승전을 기록한 글라루스 민병대와 같은 그들의 자랑스런 독립영웅들이다. 알프스에서 허락된 “산속의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강력한 독립정신과 용맹한 저항의 역사를 통해서 지켜진 것이고, 후손들은 조상들의 모범을 통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피리와

14) 워즈워스는 『서곡』 9권에서 비교적 평등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제공했던 캠브릿지대학을 “공화국”으로 비유하고(229), 자신이 누렸던 자유를 “산속의 자유”(241)라고 불렀다.

15) 1388년에 오스트리아군이 글라루스를 침략했을 때, 약 400명의 글라루스 민병대가 5000명 이상의 오스트리아 침략군을 물리쳤다는 전설적인 전투. 윌리엄텔의 전설과 더불어 스위스인의 용맹과 독립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임.

책”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가 되면 그들을 본받아 언제라도 “칼을 들고 행진”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많은 워즈워스 학자들이 초기 워즈워스의 공화주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해 온 이 대목(Vincent, 2017 95)은 1790년의 공화주의자 워즈워스가 가졌던 이념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기보다는 스위스 여행을 계획 하던 워즈워스가 그 당시 영국에서 널리 퍼져있던 스위스 신화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받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무엇이 ‘있냐’가 아니라 무엇이 ‘없냐’ 하는 것이다. 이 여행이 “산속 공화국” 스위스를 탐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무엇보다 콕스의 『스위스 여행』을 우선적으로 참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확인된 워즈워스의 여정도 순서만 거꾸로일 뿐 콕스의 여정을 그대로 따랐고(Pinion 8), 이 여행을 바탕으로 한 『소묘』 372행에서는 콕스를 불어로 번역한 라몽의 번역본을 이용했다는 각주를 시인 스스로 달아놓기도 했다(Wordsworth, 1984 7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즈워스는 위의 대목에서 뿐만 아니라 『소묘』 어디에서도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꽃이요, 콕스와 라몽이 입을 모아 “장엄하고 경외로운 장관”이었다고 예찬했던 ‘민중의회’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 ‘민중의회’가 열렸던 글라루스주(the Canton of Glarus)는 스위스 신화에서 핵심적인 장소였다. 오스트리아 침략군을 물리쳤던 네펠스전투가 벌어졌던 곳일 뿐만 아니라 주 구성원이 모두 직접 주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민중의회가 열렸던 곳이기 때문이다. 콕스의 불어 번역자 라몽은 이러한 민중의회의 소집현장에 대한 생생한 목격담을 다음과 같이 덧붙여 놓았다.

일요일에는 모든 지역에서 오는 유권자들이 쉬반덴으로 왔다. 그리고 다음 날 정족수가 거의 다 차자 유권자들은 산자락 아래의 몇 에이커 되는 풀밭에 모였다. 그곳은 마을과 가까운 곳으로 총회가 열리는 곳이었다. 거기에 의자가 4열로 동그랗게 놓여졌는데, 그 지름이 무려 300피트(90미터) 이상이었다. 주정부의 지사들이 원의 한 가운데에 앉았고, 그 주위로 약 4000명의 사람들이 모두 무장을 한 상태로 쭉 앉아있었는데, 주 정부 소속 성직자들이 해당 주 정부 지사들 옆에 붙어 앉은 것 말고는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신분과 계급의

차이가 없었다. 민중의회 의장은 원의 중심 가까운 곳에서 자유의 검을 짚고 서 있었는데, 그 옆에는 보좌관 한 명과 주정부의 제복을 입은 두 명의 호위병들이 있을 뿐이었다. 여자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남자아이들은 16세 미만이라고 해도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원 안쪽으로 들어와 앉을 권리가 있었다(Williams, Helen 75-76 재인용).

During the Sunday, the Voters came into Schivanden from all sides; and the number being nearly complete, they assembled, the following day, on a meadow of a few acres, at the foot of a mountain and near the village, where the general assembly is held. A quadruple row of benches was placed, and a circle formed of more than three hundred feet in diameter. the magistrates having taken their seats in the inner part of the circle, the people, consisting of about four thousand men, all armed, seated themselves on the other benches, without distinction, except their pastors, who were placed next their magistrates. The President stood leaning on the sword of Liberty, near the centre of the circle, with the Secretary, and two Serjeants, dressed in the livery of the Canton. The women keep at a distance; but boys not yet sixteen have a right to go within the circle, provided they remain seated, and do not disturb the deliberations.

앞서 말했듯이 워즈워스에게 민주주의의 성지를 답사하는 정치적 순례자라는 자의식이 분명했다면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콕스와 라몽이 생생하게 묘사한 민중의회의 이러한 장면을 직접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루소가 상프레의 입을 빌어서 전달한 알프스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인간성”(Rousseau, 1997 65)과 그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평등과 자유를 실제로 목도하는 것도 워즈워스의 중요한 목표였을 가능성이 많다. 워즈워스가 진짜 보고자 했던 것은 숭고한 경치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정치적 숭고”(Schama 486)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뿐만 아니라 『소묘』

의 본문 어디에도 콕스와 라몽이 전해주는 민중의회에 대한 묘사가 들어있지 않다. 여행이 반 이상 끝났을 때인 9월 6일과 16일 사이에 워즈워스가 도로씨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 여행의 전후 사정과 일정, 여행의 전반적인 소감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워즈워스는 이 편지에서도 민중의회가 열렸던 “글라루스의 낭만적인 계곡”(the romantic valley of Glarus, Wordsworth, 1962 34)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스위스의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지역”(the most sublime and beautiful parts, 35)를 떠나는 아쉬움을 토로하긴 하지만 그곳에서 ‘숭고한 공화국’의 흔적을 찾아보거나, 그것의 부재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는 표시도 하지 않는다. 사실 위의 인용문이 이념적으로 가장 많이 빚지고 있는 사상가는 루쏘였다.¹⁶⁾ 9월 학살과 루이 16세의 처형 이후 영국에서는 루쏘가 자코뱅식 공화주의와 동일시되어 영국의 진보적인 개혁진영에서도 일종의 기피인물로 간주되었지만 사실 루쏘 자신은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프랑스식 공화정보다는 스위스와 같은 소규모 공화국의 직접 민주주의를 더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워즈워스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인민주권론, 국가공동체의 독립과 자율 등 스위스 신화와 이를 이어 받은 루쏘의 공화주의적 원칙들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프랑스나 영국같이 큰 규모의 공화국이 채택할 수밖에 없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루쏘의 직접 민주주의 이론은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수용할 수 없었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16) 이 시기 워즈워스의 공화주의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유명한 이 대목은 가장 현저하게 루쏘적이다(Vincent, 2017 95). 우선 첫 문장 “언제나 인간은 자유로왔다”는 루쏘의 『사회계약론』(*The Social Contract*)의 유명한 첫 문장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지금은 사슬에 묶여있다”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신에 대한 복종말고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던 “원초적인 인간”에 대한 대목도 『인간불평등의 기원』(*A Discourse on the Origin of Inequality*)에 나오는 문명으로 타락하기 전의 원시적 인간, 이른바 “고귀한 야만인”(noble savage)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자신의 이성이 알려주는 것 말고는 어떤 법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의지’(the general will)에 따라 스스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민주권(the sovereignty of the people)을 풀어서 얘기한 것이다. 태초의 인간이 “피리와 책, 그리고 칼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은 민중의회에 참여하고 오스트리아의 대군을 물리치는 14세기 스위스의 민병대를 염두에 두고 묘사한 것이지만, 같은 것을 모델로 하여 루쏘가 『사회계약론』 4권에서 “떡갈나무 아래에서 틀림없는 지혜로 국정의 현안을 결정하는 농부들”을 언급한 것과 긴밀히 연결되기도 한다. 루쏘의 사상에 관해서는 Dent 참조

콕스와 라몽이 그토록 찬양했던 민중의회의 장관은 누락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즉 위즈워스가 콕스의 여행기의 내용을 대부분 따라 하면서도 민중의회에 대한 묘사나 언급을 생략한 것은 이 당시의 위즈워스는 루소의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적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프랑스 공화주의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한다(Vincent, 2023 68). 그 때문인지 그는 대부분의 여정이 스위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인들보다는 스위스로 오는 길목에서 마주친 프랑스인들에게 더 큰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Wordsworth, 1962 36).

위즈워스가 콕스와 같은 영국의 휘그 지식인들과는 달리 프랑스 공화주의를 선호했다는 것은 그가 프랑스에서 돌아와 『소묘』를 펴낸 직후에 집필한 미출판 논설문 『편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위즈워스는 한때 개혁진영에서 프랑스혁명의 발발을 환영했던 랜다프주교가 자코뱅의 루이 16세 처형을 계기로 완전히 돌아서서 자코뱅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자극받아, 그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정치적 논설문을 집필했다. 이 글은 형 리처드의 만류로 출판되지 못했지만, 그 당시 위즈워스의 공화주의 이념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 유일한 문건인데, 여기에는 프랑스 공화주의에 대한 열렬한 지지가 표명되어있다. 여기에서는 스위스 신화나 루소의 천부적인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론을 훨씬 넘어서서 혁명적 폭력에 대한 옹호, 세습군주제에 대한 반대,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는 보편적인 대의제 등을 주장하면서 당시의 프랑스 혁명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한다. 이 논설문의 입장은 당대의 영국 개혁진영의 이념적 스펙트럼(spectrum)에서도 매우 급진적인 편에 속하는데(박찬길, 2011 69-96),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논점은 1793년의 공화주의자 위즈워스는 “노르만의 굴레”(Norman Yoke)¹⁷⁾이론을 바탕으로 “고대 영국의 자유”(Ancient British Liberty)의 회복을 주장하는 영국의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나 1688년의 명예혁명으로 수립된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삼는 개혁적 휘그(Whig), 혹은 17세기 영국의 공화주의를 이념적 지표로 삼는 영국식 공화주의자와는 엄격하게 선을 긋고,

17) 원래 영국에는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었지만 1066년 정복자 윌리엄(William the Conqueror)이 건너와 노르만왕조를 시작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억압되었다는 믿음(Cunningham 8-33).

자신이 어떤 의미로든 영국식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개혁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프랑스 혁명정부를 지지하는 프랑스식 공화주의자임을 명백히 천명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세상 누구나 결국에는 영국의 헌법을 노예처럼 채택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하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다. 당신이 군주제의 그늘 아래보다 공화국의 열린 들판에서 자유와 행복이 꽃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꾸짖는” 것을 보고 나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대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모순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다. 2500만 프랑스인들은 군주의 권력을 어떻게 바꾸든 그 밑에서 그들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들은 그래서 만장일치로 공화국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단지 그 권리, 즉 당신 자신도 인정하는 바 그 본질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다.

It is with surprize then that I find you afterwards presuming to dictate to the world a servile adoption of the British constitution. It is with indignation I perceive you “reprobate” a people for having imagined happiness and liberty more likely to flourish in the open field of a republic than under the shade of monarchy. You are therefore guilty of a most glaring contradiction. Twenty-five millions of Frenchmen have felt that they could have no security for their liberties under any modification of monarchical power. They have in consequence unanimously chosen a republic. You cannot but observe that they have only exercised that right in which by your own confession liberty essentially resides(Wordsworth, 1974 Vol 1 35).

워즈워스가 20대 초반에 쓴 풍경시의 한 구절과 출판도 되지 못한 정치적 논설문의 한 구절만 가지고 그가 당시에 가졌던 공화주의를 이념적으로 정확하게 자리매김하기는 물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790년의 스위

스 여행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소묘』와 『편지』를 집필할 때까지 완성된 공화주의자 워즈워스는 알프스의 숭고한 자연과 결합된 ‘산속 공화국’과 루소의 고전적 공화주의로부터 출발했지만 결국은 스위스의 알프스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새롭게 수립되기 시작한 근대적인 공화국에서 그가 추구하던 진정한 “정치적 숭고”를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입헌군주제를 전제로 하는 ‘영국식’ 자유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다.

4. 워즈워스의 “변절”과 스위스 신화의 재소환

워즈워스는 1821년 12월 4일에 제임스 로쉬(James Losh)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달라진 정치적 입장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내가 만일 배신자, 변절자 등등의 말을 함부로 입에 담는 자들을 상대하고 있다면, 나는 그 비난을 곧바로 그들에게 되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장소와 사람에 속은 것은 바로 당신들이지 내가 아니다(원저자 강조). 오히려 나는 원칙들을 고수했다(필자강조). 나는 프랑스와 그 위정자들을 버렸다. 그들이 자유를 위한 투쟁을 저버린 채 폭정으로 내닫고 세상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을 때 말이다. 물론 나도 처음에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반대했다. 그 전쟁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건 오류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스위스의 독립을 침해한 다음에는 나폴레옹에 대해, 그리고 기꺼이 그런 폭거의 도구가 되기로 한 나라에 대해 내 마음이 돌아섰다.

If I were addressing those who have dealt so liberally with the words Renegado, Apostate etc, I should retort the charge upon them, and say, *you* [Wordsworth emphasis] have been deluded by Places and Persons, while *I have stuck to* [my emphasis] Principles-I abandoned France, and her Rulers, when they abandoned the struggle for Liberty, gave themselves up to Tyranny, and endeavoured to enslave the world. I

disapproved of the war against France at its commencement, thinking, which was perhaps an error, that it might have been avoided-but after Buonaparte had violated the Independence of Switzerland, my heart turned against him, and the Nation that could submit to be the Instrument of such an outrage(Wordsworth, 1978 97).

워즈워스는 과거의 개혁가 동료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변절”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고 쓴 이 편지에서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천명한다. 첫째, 자신은 프랑스와 그 위정자들을 “버렸다”는 것. 둘째, 그 이유는 나폴레옹이 스위스를 정복했기 때문이라는 것. 셋째, “원칙들”을 저버리고 진짜 “변절”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나폴레옹과 프랑스라는 것이다. 워즈워스의 이러한 자기변명을 끝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나폴레옹전쟁이 종식된 이후에도, 워즈워스의 마음속에서는 스위스의 자유와 독립, 그들의 ‘산속 공화국’이 본인이 여전히 고수한다고 생각하는 “원칙들”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793년에 『편지』를 썼던 워즈워스는 “정치적 숭고”를 찾아 스위스를 여행한 후, 매우 분명하게 스위스인들의 “산속의 자유”가 그들의 역사적인 현실이 아닐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미래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었다. 1793년의 워즈워스에게 진정한 공화국은 프랑스뿐이었고, 스스로가 프랑스 공화주의자로서 프랑스혁명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천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워즈워스의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스위스침공이 결코 “원칙들”에 대한 배반이 아니었다. 1821년의 워즈워스는 마치 이 당시 자신의 “원칙들”이 프랑스 공화주의가 아니라 스위스 “산속 공화국”의 공화주의였던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워즈워스는 그때까지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스위스 직접민주주의를 신봉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프랑스가 1798년에 스위스를 침공하면서 파괴한 것은 스위스 신화의 물질적인 근거인 구체제의 지방분권적 권력구조였지 워즈워스가 당시에 지지했던 프랑스 공화주의가 아니었다. 따라서 스위스침공에 대한 워즈워스의 분노는 근거없는 자기기만에 가까웠다. 하지만 1821년의 워즈워스는 프랑스 공화주의로부터의 이탈을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 스위스 신화와 그것이 가진 “정치적 숭

고”를 다시 역사적 현재로 소환할 필요가 있었다. 자신으로 하여금 프랑스와 프랑스혁명에 등 돌리게 한 것이 나폴레옹이었고, 그 나폴레옹이 파괴한 것이 스위스의 ‘숭고한 공화국’이라면, 그러한 공화국의 적에 맞서 싸우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전쟁”(a just and necessary war)¹⁸⁾으로서 역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은 스위스 신화가 제공하는 상상의 공간에서 윌리엄 텔과 같은 편이 되어 ‘산속 공화국’을 지켜내는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위즈워스에게 스위스 신화는 자신의 “변절”을 정당화하는 도구 이상이었다. 나폴레옹이 1798년에 스위스를 침공하여 구체제를 해체하고 프랑스식 공화정의 형태를 가진 헬베틱 공화국을 만든 것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스위스 신화의 ‘산속 공화국’은 역사적 공간에서 소멸했음을 뜻했다. 위즈워스는 나폴레옹전쟁이라는 역사적 현실 안에서 그 대체물, 즉 새로운 “정치적 숭고”의 실체를 발견해야 했고, 그에 해당하는 것이 나폴레옹에 맞서 싸우는 스페인 민중의 게릴라부대와 그 조직적 거점인 “훈타”(The Juntas, Fraser 124-53)였다. 1808년에 나폴레옹이 스페인의 페르디난드 7세를 퇴위시키고 자신의 동생인 조지프 보나파르트(Joseph Bonaparte)를 스페인 왕으로 즉위시켰을 때, 스페인 민중들은 프랑스의 통치를 거부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으로 저항했다. 각 지역의 유력한 지도자들은 지역별로 일종의 임시군사정부였던 “훈타”를 결성하고, 지역민들을 민병대로 조직하여 프랑스군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외국의 침략군에 각 지역의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민병대를 조직하여 저항한다는 점, 더욱이 그 침략군이 스위스를 정복한 프랑스군이라는 점에서 스페인 민중들의 투쟁은 스위스 신화의 윌리엄텔과 글라루스 민병대의 영웅적 투쟁을 연상시켰다. 이들이 포르투갈의 민중과 함께 프랑스군에 맞서 싸운 전쟁이 반도전쟁(The Peninsular War 1807-1814)이었는데, 이것은 영국과 연합군이 유럽대륙에서 프랑스에 맞서 싸우던 나폴레옹 전쟁의 일부였다.

위즈워스가 스페인과 포르투갈 민중들의 저항전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808년에 포르투갈에 지원군으로 파견되어 프랑스군과 교전을 벌이던 영국군이

18) 전쟁옹호론자들이 흔히 썼던 표현. 위즈워스도 나폴레옹에 대항하는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쾨트라조약』에서 사용했다(Wordsworth, 1974 vol 1 226).

프랑스군과 맺은 쾨트라조약(The Convention of Cintra) 때문이었다. 당시 영국군은 프랑스군을 거의 궤멸시키기 일보 직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국에서 파견된 장군들의 안일한 판단으로 인해, 패배한 프랑스군의 안전한 복귀를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무기와 전리품을 그대로 가져가게 하는 등, 영국군의 승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굴욕적인 휴전조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희귀한 영국의 외교적 참사였는데, 정파와 무관하게 영국의 모든 지식인들이 이에 대해 분노하고 비판했다. 워즈워스도 『쾨트라조약』이라는 정치논설문으로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¹⁹⁾ 이 논설문은 나폴레옹의 스위스침공을 기점으로 한 워즈워스의 정치적 보수화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급진적인 공화주의적 이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가령 세비야 지역의 “훈타”가 발행한 격문을 인용하면서 갑자기 제시하는 국민주권론 같은 것이 하나의 예다(II. 2784-2779, Wordsworth, 1974 vol 1 290). 사실 로쉬에게 보낸 편지에서 워즈워스 스스로 인정했듯, 1798년 이후 워즈워스가 프랑스에 등을 돌린 지도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마치 과거의 공화주의적 신념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듯이 갑자기 루소의 국민주권론을 열렬하게 찬양하는 것은 다소 뜬금없는 일로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논설문은 비록 나폴레옹과 프랑스에 등을 돌렸더라도 자기 나름으로는 공화주의적 신념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워즈워스가 나폴레옹의 “타락한” 공화주의와 거리를 두면서 이른바 자신의 “원칙들”을 지켜 나가기 위해 고심 끝에 쓴 글이었다.

5. 워즈워스의 보수화와 스위스 신화의 영국적 전유

워즈워스는 『쾨트라조약』에서 어렵사리 과거의 공화주의적 열정을 다시 보여줬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 논설문이 출판된 1809년은 워즈워스의 보수화가 거의 완성되어가는 시점이었다. 빈센트의 말대로 스위스가 “워즈워스의 공화주의 이론의 유효성을 보증하는 시금석”(Vincent, 2023 59)으로 기능했다고 하더

19) 반도전쟁과 쾨트라조약에 관해서는 박찬길, 2019 48-61 참조.

라도, 그러한 ‘산속 공화국’ 스위스는 1798년 이래 더 이상 현실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폴레옹전쟁의 한 국면에 나타난 스페인 민중의 영웅적인 저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스위스 신화를 연상시켰지만 그 효과가 지속적일 수는 없었다. 스위스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려면, 어딘가에 그 객관적 상관물, 진짜 스위스는 아니지만 그에 해당하는 장소가 현실에 실재해야 했으며, 워즈워스는 그것을 자신의 조국인 영국에서 찾기로 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1798년은 주목할 만한 시점이다. 나폴레옹에 정복당한 스위스 주대표들이 헬베틱 공화국을 선포한 것이 1798년 4월 12일이었고, 워즈워스가 알프스만큼이나 ‘숭고한’ 경치를 영국 안에서 새삼스럽게 발견한 것이 그로부터 불과 세 달 뒤인 1798년 7월 13일이었기 때문이다.²⁰⁾

나는 고양된 생각들이 주는 기쁨으로
 나를 거북하게 하는 어떤 존재를 느꼈다.
 훨씬 더 깊게 퍼져있는 어떤 것에 대한 숭고한 감각,
 그것이 거주하는 곳은 석양의 낙조,
 그리고 넓은 바다와 살아있는 대기,
 그리고 푸른 하늘,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이다.
 (『틴턴사원』 93-99)

And I have felt
 A presence that disturbs me with the joy
 of elevated thoughts: a sense sublime
 of something far more deeply interfused,
 Whose dwelling is the light of setting suns,
 And the round ocean and the living air,
 And the blue sky, and in the mind of man:
 (“Tintern Abbey” 93-99, Wordsworth, 1992 116-20)

20) 물론 『서곡』에 나오는 스노우돈 등정이 더 인상적인 ‘숭고’의 경험을 제공했고, 그것이 훨씬 더 앞선 시기였지만 그것을 시적 경험으로 표현한 것은 1805년 『서곡』에서였다.

이 시는 1793년 7월 13일이라는 특정한 시점에, 웨일즈의 틴턴사원이라는 특정한 장소의 아름다운 자연을 예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아름다움의 치유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다가 급기야 그 효과의 “더 숭고한 측면”(Of aspect more sublime, 37)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간다. 이 시는 기본적으로 자연이 시적 화자에게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 초반(1-22)에는 영국의 특정한 시점과 특정한 장소가 등장하지만 23행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구체적인 시공간이 사라진다. 특히 화자로 하여금 “고양된 생각들”을 갖게 하는 “어떤 존재”의 위치는 웨일즈나 영국의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이 지구 전체,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속”으로까지 확산된다.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어디냐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 있든 시적 화자로 하여금 “숭고한 감각”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워즈워스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대목이 이른바 “내면화”의 증거로 거론되지만, 동시에 이것은 “자연”을 관념화한 것이다. “숭고”의 경험을 담보하는 “자연”이 하나의 관념이 되면, 그 관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로든 쉽게 이식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스위스의 ‘산속 공화국’이 역사의 지평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쓰여진 「틴턴사원」은 향후에 있을 숭고의 영국적 전유를 무의식중에 예비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스위스의 숭고한 자연환경은 알프스 사람들의 숭고한 성격과 숭고한 삶의 방식을 낳은 것으로 되어있다. 워즈워스가 1790년 여행에서 실제로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참고했던 콕스의 책에는 알프스의 ‘숭고한’ 경치와 그에 힘입은 ‘숭고한’ 사람들의 마을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그 경치가 주는 숭고한 공포심에 한동안 계속 탄복하다가 계곡으로 내려왔다...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스위스 마을의 안쪽 풍경이었다. 내가 그때까지 방문했던 집들은 모두 청결, 평안, 검소를 나타내는 가장 생동감있는 장면들을 제공했으며, 그래서 어떤 관찰자라도 그 집의 농부가 행복할 것이라는 점을 즐거운 마음으로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내가 이 작은 민주국가들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주민들이 누리는 보편적인 평등과 차등없음이 어떤 것인지 짐작도 못했을 것이다...주요 지역에 사는 더 부유한 주민들의 집도 다 똑같은 재료로 만든 것들이

었고, 유일한 차이는 크기가 조금 더 크다는 것 뿐이었다...보편적인 자유, 보편적인 독립성, 그리고 자의적인 세금의 면제는 풍요와 사치가 제공하는 세련된 물품들의 결핍을 충분히 보상해주는 축복이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보편적인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곳은 오직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 작은 공화국들 뿐이다.

After we had continued some time admiring the sublime horror of the scenery, we descended into the valley...Nothing delights me so much as the inside of a Swiss cottage: all those I have hitherto visited, convey the liveliest image of cleanliness, ease, and simplicity; and cannot but strongly impress upon the observer a most pleasing conviction of the peasant's happiness. If I had never seen these little democratical states, I could have formed no idea of the general equality and indistinction that prevails among the inhabitants...The houses of the richer inhabitants in the principal burghs, are of the same materials: the only difference consists in their being larger... General liberty, general independence, and an exemption from arbitrary taxes, are blessings which amply compensate for a want of those refinements that are introduced by opulence and luxury. But it is only in these small republics, and in such a state of society, that this kind of general democracy can have place(Coxe 52-53).

콕스가 묘사한 “산속 공화국”에는 실제로 사치금지법(sumptuary law)이 있어서 검소한 생활이 법제화되어 있었으며, 험준한 산속이라는 지리적 환경은 도시에 서와는 달리 과도한 세금 등 봉건적 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산속 공화국’의 주민들은 대체로 자급자족적 경제를 영위하는 소규모 독립자영농으로서 자손대대로 내려오는 자기 소유의 농지에서 독립적이고 평등한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영국에는 물론 콕스가 알프스에서 느꼈던 “숭고한 공포심”을 줄 만한 험준한 산은 없었지만, 알프스의 주민들에 비교할 만한 자급자족적 소규모 독립자영농은 존재했다. 위즈워스는 자신의 고

향인 호수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그 지역에서 “소지주”(the statesman)라고 불렸다. 1851년에 간행된 한 잡지에는 컴벌랜드(Cumberland)지역의 “소지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들은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다. 땅을 가는 농부로, 양을 기르는 양치기로. 강인하고 오랫동안 생존해온 종족이며 직접 기른 것을 먹고,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었다. 산속의 눈보라와 싸울 만큼 힘이 세고, 사냥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그들은 날짜를 날이나 달, 해로 따지지 않고 단식일, 축제, 장날과 잔치날, 큰 전쟁과 위인들의 시대 같은 것으로 더 잘 기억한다. 특히 마지막 두 항목이 중요한데, 그들이 아주 평범한 일들이 일어난 시기도 트라팔가 해전, 워털루전투, 혹은 피트수상 시절 혹은 다른 큰 인물의 시대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옛날 바이킹들의 전쟁과 영웅담처럼 하고, 그것은 여전히 그들의 목동 후손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한다.

Thus have they lived 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tillers of the ground, and keepers of sheep; a hardy, long-lived race, fed and clothed out of their own produce; men mighty to struggle with the storm on the mountains, lovers of cur-dogs...They are a people who reckon not by days, and months, and years, so much as by fasts and festivals, fairs and merry-makings, great battles, and the times of great men. For the last two they are especially notable: you may hear them date a very ordinary event by the battle of Trafalgar, or Waterloo, or the days of Pitt, or any other prominent man of the time; and in this they shew forth the old Norse love of war and heroes, which still animates the hearts of their pastoral descendants(*Chamber's Journal* 137).

이들은 알프스 수준의 험준한 산악지형이 없다는 것만 빼고는 스위스 ‘산속 공화국’ 시민들의 주요 특징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거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인한 신체와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급자족 경제를 영위한다는 것, 그리고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용맹한 조상들에 대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함께 기억한다는 것 등이 그렇다. 워즈워스가 스위스에서처럼 자신의 고향에서 ‘숭고한’ 사람들의 ‘숭고한’ 삶의 방식을 찾는다면, 이들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글이 나왔던 1851년뿐만이 아니라 워즈워스가 『서정담시집』을 출간할 때도 이미 이러한 소규모 독립자영농이 매우 빠르게 쇠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Beckett 97-111). 워즈워스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Michael)을 써서 1800년 판 『서정담시집』(Lyrical Ballads)에 포함시켰다. 다른 시와는 달리 당시 휘그의 수장이었던 폭스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이 시의 배경과 의도를 자세히 설명했다.

「형제들」과 「마이클」이 두 시에서 저는 가족애를 그려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사랑은 이제는 거의 잉글랜드 북부지방에만 살고 있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규모의 독립적인 토지소유자이며, 이 지역에서는 소지주(小地主, statesman)라고 불리는데,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자기 소유의 작은 땅에서 매일 일합니다. 가족애는 인구가 많지 않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앓다면요. 이들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가진 소규모 토지소유자라면, 그러한 사랑이 가지는 힘이 대단한데, 그것은 고용된 노동자, (고용된) 농부, 공장에서 일하는 빈민만 봐온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들의 이 작은 땅은 그들의 가족적 감정이 한데 모이는 영원한 집결지점 같은 것입니다...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In the two Poem, “The Brothers” and “Michael” I have attempted to draw a picture of the domestic affections as I know they exist amongst a class of men who are now almost confined to the North of England. They are small independent *proprietors* of land here called statesmen, men of respectable education who daily labour on their own little

properties. The domestic affections will always be strong amongst men who live in a country not crowded with population, if these men are placed above poverty. But if they are proprietors of small estates, which have descended to them from their ancestors, the power which these affections will acquire amongst such men is inconceivable by those who have only had an opportunity of observing hired labourers, farmers, and the manufacturing Poor. Their little tract of land serves as a kind of permanent rallying point for their domestic feelings...This class of men is rapidly disappearing(Wordsworth, 1962 314-15)

워즈워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의 땅이라도 독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이 오래전부터 그 집안에서 소유해 온 것이라면, 그 집안 구성원의 가족적 연대감은 대를 이어 내려오는 그 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강력하게 가족 구성원을 결속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이 결국 애국심으로 귀결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규모 자영농이 모여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인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스위스 신화 속 농민들의 경우와 같다. 워즈워스 역시 자신의 고향에서도 이들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은 그들의 공동체가 계속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호수지역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었던 대규모 자본주의적 농업이 더 이상 확장되지 말아야 하고, 호수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이 관광과 휴가산업 등 상업적인 개발이 아니라 전통적인 소규모 자영농들의 생계를 위한 노동의 터전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호수지역으로 들어오는 상업주의 자본과 그들의 대규모 자본주의적 영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워즈워스가 “소지주”의 보호와 유지를 주장했던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시대착오적인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에게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존재가 본인이 고향에서 건설하고 싶은 새로운 ‘산속 공화국’의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가진 전통적인 토지소유권과 그것에서 비롯된 “가족애”는 워즈워스가 보고 싶은 영국판 알프스

공화국의 애국심과 같은 것이었다. 워즈워스가 「마이클」에서 그 두 가지 요소를 빼앗긴 “소지주”를 비극의 주인공처럼 그려낸 것은 자신의 시가 영국의 숭고한 자연을 배경으로 숭고한 인물들이 써 내려가는 새로운 스위스 신화이고, 이제는 스위스가 아니라 영국이 세계에 모범이 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보루”임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스위스 신화의 전유는 워즈워스의 보수적 성향이 점차 심화되면서 영국의 자연을 바라보는 미학적 관점 자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도네이토가 지적했듯 스위스 신화의 출발점은 알프스의 숭고한 자연이었다. 숭고한 자연은 숭고한 정치체제를 만들었고, 이것을 “공화주의적 지리학”이라고 불렀다 (Vincent, 2023 22). 워즈워스가 시도한 스위스 신화의 영국적 전유가 완성되려면, “소지주”와 같은 숭고한 사람들도 필요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낸 숭고한 자연이 영국에도 꼭 필요했다. 워즈워스가 영국의 호수지역을 “작은 스위스”로 그려내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런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 필요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작업이 바로 1809년에 시작된 『안내서』였다. 이 산문은 죠지프 윌킨슨(Joseph Wilkinson)이 만든 호수지역에 대한 판화집에 대한 해설로 시작되었는데, 1835년 마지막 증보판이 나올 때까지 수많은 수정과 첨삭을 거치며 호수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안내서로 자리잡게 된다(Wordsworth, 1974 vol 2 123-35). 처음에는 미리 그려진 판화에 대한 보충설명에 불과했지만, 곧 시인 자신의 독자적인 기획으로 발전했고, 1820년판부터는 판화의 자취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바로 이때부터 알프스와의 본격적인 비교가 시작되었다 (Wordsworth, 1974 vol 2 133-35). 돌이켜보면 1790년의 워즈워스는 동생 도로씨에게 자신이 본 알프스를 전혀 다른 어조로 전했다.

나는 끊임없이 네 생각을 했다. 특별히 아름다운 장면이 내 눈 앞에 펼쳐질 때마다 내가 지금 즐겁게 보고 있는 이곳으로 네가 휙 날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단다. 내가 특히 그런 바람을 가졌던 것은 스위스의 경치가 내가 영국에서 봤던 것들과는 조금도 닮지 않았고, 따라서 너는 [내가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것

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야(필자 강조).

I have thought of you perpetually and never have my eyes burst upon a scene of particular loveliness but I have almost instantly wished that you could for a moment be transported to the place where I stood to enjoy it. I have been more particularly induced to form those wishes because **the scenes of Swisserland have no resemblance to any I have found in England**, and consequently it may probably never be in your power to form any idea of them(Wordsworth, 1962 35, my emphasis).

외국의 풍광을 처음 경험하는 20세 젊은이의 다소 과장된 수사법을 감안하더라도, 이때의 워즈워스는 스위스의 경치의 아름다움을 비교불가의 절대적인 경지라고 평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30년 후의 워즈워스는 호수지역을 알프스와 비교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나는 호수지역의 거주자로서 이 지방의 경치를 알프스의 경치와 비교하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만일 수백년 전에 산봉우리들을 대부분 뒤덮고 있었던 이 지역 고유의 소나무 숲을 호수지방으로 다시 소환할 수 있다면, 적어도 봄과 가을에는, 그것을 스위스와 비교하는 것이 아주 적절할 것이다. 경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동일하며, 전자[호수지역]는 후자[알프스]를 축소판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필자강조).

As a resident among the Lakes, I frequently hear the scenery of this country compared with that of the Alps...If we could recall, to this region of lakes, the native pine forests, with which many hundred years ago a large portion of the heights was covered, then, during spring and autumn, it might frequently, **with much propriety**, be compared to Switzerland,-the elements of the landscape would be the same-one country representing the other in miniature(Wordsworth, 1974 Vol 2 232, my emphasis).

물론 호수지역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상상했을 때, 그것도 봄과 가을 동안만이라고 한정하긴 했지만, 워즈워스는 여기서 호수지역을 알프스와 비교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우 적절”하다고 강변하고 있긴 하지만, 바로 아래에서, “구름이 산 정상에 걸쳐있거나 그 주위를 맴돌 때, 그래서 솟구친 산봉우리의 전경을 눈보다는 상상력을 통해서 볼 때 그 유사성이 훨씬 더 완벽해진다”(the resemblance would be still more perfect on those days when vapours, resting upon, and floating around the summits, leave the elevation of the mountains less dependent upon the eye than on the imagination, Wordsworth, 1974 vol 2 232) 말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하는 두 경치의 유사성은 물리적인 유사성이 아니라 강력한 상상력이 동원되어 ‘만들어진’ 유사성임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억지스러운 비교는 나무들의 다양성이나 아름다움에 있어서 영국이 스위스보다 앞선다든지, 스위스의 호두나무와 자작나무가 멋지긴 하지만 널리 분포된 것은 아니라든지, 아니면 스위스에도 떡갈나무도 있긴 하지만 그 품질이 영국의 떡갈나무보다 훨씬 열등하다는 식으로(Wordsworth, 1974 vol 2 234) 무리하게 영국의 비교우위를 주장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 영국의 자연을 스위스의 자연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욕망은 사실 워즈워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18세기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행문의 저자였던 길핀(William Gilpin)은 픽처레스크 이론에 입각하여 스위스 자연에 대한 영국 자연의 비교우위를 주장했다(Vincent, 2007 322). 워즈워스가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토마스 웨스트(Thomas West)의 호수지역 안내서에서도 호수지역의 자연경관이 크기와 규모에서만 좀 떨어질 뿐 “선의 아름다움이나 산 정상의 다양한 형태, 호수의 숫자, 물의 투명성”(beauty of line, or variety of summit, number of lakes, and transparency of water, Vincent 2023 142 재인용)에 있어서는 알프스에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워즈워스는 두 나라 자연의 물리적 차이를 특정한 조건이나 특정한 세부사항에 한정된 비교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호수지역의 경치가 알프스의 경치

만큼 ‘숭고’하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주장하기 어렵다면, 그 숭고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떠올랐을 수도 있다. 워즈워스가 『안내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다가 중단한 산문 「숭고와 아름다움」 (“The Sublime and the Beautiful”)의 집필배경에는 아마도 그러한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미완성원고의 형태로 남아있는 이 산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친숙한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접촉을 통해 상상력이 발동되지 않으면, 사실 그해야만 하지만, 자기 주변 경치의 숭고성에 무감각해질 것이다.

...It is not likely that a person so situated, provided his imagination be exercised by other intercourse, as it ought to be, will become, by any continuance of familiarity, insensible to sublime impressions from the scenes around him(Wordsworth, 1974 Vol 2 349).

너무 익숙해서 그 특성이나 장점을 인식하기 어려운 주변의 경치, 즉 호수지역 경치의 숭고성을 이론적으로 다시 정립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다. 워즈워스는 처음부터 영국의 자연에 걸맞는 숭고론을 정립해보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는데,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길핀의 픽처레스크(Picturesque)론이나 버크(Burke)의 숭고론을 가지고는 자신이 원했던 영국 호수지역의 숭고성, 그것도 스위스 알프스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숭고성을 입증해내는 것이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워즈워스는 버크의 숭고론 처럼 숭고성을 자연풍경이 관찰자에게 끼치는 심리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호수지역의 자연이 가진 특성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독자들에게 나와 함께 원더미어 꼭대기에 있는 산봉우리들 쪽으로 눈을 돌려볼 것을 권한다...그 산들을 우리 눈 바로 앞에서, 하지만 너무 가까이는 말고 그 산 전체를 조망할 정도의 거리 정도 떨어져서 본다면, 우리는 숭고의 감각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면,

이러한 감각의 실체는 세 개의 구성요소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별적인 형태 혹은 형태들에 대한 감각, 지속성에 대한 감각, 그리고 힘에 대한 감각이 그것이다.

Let me then invite the Reader to turn his eyes with me towards that cluster of Mountains at the Head of Windermere...if they be looked at from a point before our eyes, yet not so near but that the whole of it is visible, we shall be impressed with a sensation of sublimity.-And if this is analyzed, the body of this sensation would be found to resolve itself into three component parts: a sense of individual form or forms; a sense of duration; and a sense of power(Wordsworth, 1974 Vol 2 351).

사실 숭고성의 원천을 처음부터 윈더미어(Windermere)의 산으로 정해놓고 그것에서 일반적인 숭고론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애당초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가령 워즈워스의 숭고를 위해서도 관찰자가 산을 거대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그 산 자체가 거대할 필요는 없고, 관찰자가 그 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된다는 식이다. 즉 알프스같이 거대한 산이 아니어도 관찰자가 산의 크기를 거대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미학이론을 지향하기엔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 “개별적인 형태”를 숭고성의 구성요소로 정한 것도 웨스트가 호수지역의 산들을 알프스와 비교하면서 “선의 아름다움이나 산 정상에 다양한 형태”를 우월한 점으로 꼽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거대한 규모의 산맥이 아니라 몇 개의 봉우리라도 그 형태들이 다양하면 숭고성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지속성”이나 “힘”이라는 요소들도 물론 알프스에도 해당되지만, 호수지역의 산들을 포함하여 어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다. 이 미완성원고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새로운 숭고론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호수지역의 숭고성을 확립하고 싶은 워즈워스의 욕심이었고, 어떻게든 알프스의 “정치적 숭고”를 호수지역으로 이식하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숭고와 아름다움」은 “숭고”를 설명한 다음 “아름다움”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6. 스위스 신화와 워즈워스의 “변절”

스위스 신화는 자연의 장엄한 아름다움이라는 미학적 숭고와 자유, 평등, 독립의 가치를 품은 공화주의라는 정치적 숭고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정신적 구조물이었다. 1790년의 워즈워스는 이러한 신화를 마음속에 품고 알프스로 떠났지만, ‘산속의 자유’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글라루스의 민중의회가 아니라 빠리의 국민공회(National Convention)임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간 워즈워스는 결국 프랑스 공화주의자가 되어 영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프랑스 공화주의자 영국 청년이 프랑스와 전쟁 중인 영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워즈워스는 훗날 나폴레옹이 스위스를 침공했던 1798년에 나폴레옹과 프랑스에 “등을 돌렸다”고 주장했지만, 워즈워스가 그것과 함께 조용히 포기한 것은 프랑스 공화주의였다. 나폴레옹이 민주주의의 상징 스위스를 침략함으로써 “프랑스가 잘 되면, 인류를 위하는 선한 사람들의 헌신이 헛되게 되는 일이 더 이상 없고, 인류의 치욕인 이 가장 심하게 썩은 이 나뭇가지가...그 본체와 함께 한꺼번에 무너져내릴 것(That, if France prospered, good men would not long/Pay fruitless worship to humanity,/And this most rotten branch of human shame.../Would fall together with its parent tree, 『서곡』 10권 222-27)”이라는 “신념”(faith, 221)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시점에서 프랑스 공화주의는 프랑스 내부에서도 그 성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실험이었음을 고려할 때, 워즈워스가 이때 그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정치적 “변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이때는 영국에서 거의 모든 개혁운동 조직이 괴멸되었을 정도로 영국 정부의 탄압이 극심하기도 했기 때문이다(Goodwin 451-99). 워즈워스 역시 정부의 사찰과 탄압 때문에 살던 집에 쫓겨났고, 결국 독일로 원하지 않은 장기여행을 떠나야 했다. 이때 워즈워스가 했던 것은 “변절”이 아니라 ‘망명’이었고, 바로 이때 톰슨이 말하는 “환멸”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일종의 정치적 망명지였던 당시의 독일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고, 워즈워스는 결국 빈손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스위스 신화가 다시 소환된 건 바로 그때였다. 워즈워스는 “환

떨”이 “변절”이 되지 않도록, 스위스의 정치적 송고를 “양치기와 농부들이 사는 완벽한 공화국”으로 되살려야 했고, 알프스의 미학적 송고를 호수지역 안에서 다시 발견해야 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든 영국에서든 스위스 신화가 현실의 역사로 구현될 전망이 사라졌으므로 시인은 어떻게든 송고한 공화국의 꿈을 지속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스위스 신화를 만들어내야 했다. 워즈워스가 호수지역으로 귀향한 이후 1815년까지 썼던 거의 모든 시들은 그런 신화 만들기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 아마 워즈워스는 그런 뜻에서 스스로 “원칙들을 고수”했다고 말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1815년에 나폴레옹전쟁이 끝나면서 시인이 “고수”하고자 했던 공화주의적 꿈은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었다. 워즈워스는 나폴레옹이 스위스를 침공했던 1798년을 기점으로 프랑스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고 공언했지만 그와 동시에 조용히 다시 불러들인 것은 스위스 신화, 그중에서도 스위스식 공화주의였다. 워즈워스는 마치 프랑스 공화주의가 아니라 스위스식 공화주의가 원래의 자기 신념이었다는 듯이 말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은 자기기만이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정치적 명분은 그의 반나폴레옹주의였다. 나폴레옹과 전쟁 중이었던 영국에서는 그의 반나폴레옹주의가 프랑스 공화주의에 대한 시인의 열정과 환멸을 모두 가려줌으로써 공화주의자로서의 ‘일관성’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워즈워스가 은밀하게 재소환한 스위스 공화주의는 당시에 영국의 지배적인 정치세력이었던 휘그가 지지했던 이념이기도 했고, 프랑스와의 전쟁의 상황에서는 영국의 애국주의적 정책과도 부합하는 ‘안전한’ 노선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1798년부터 1815년까지 어떤 식으로든 공화주의의 꿈을 폐기하지 않으면서 “원칙들을 고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역설적으로 그의 주적이었던 나폴레옹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1815년에 나폴레옹이 최종적으로 몰락함으로써, 워즈워스의 ‘송고한’ 공화국도 그 근거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워즈워스가 건설하려고 하던 영국의 스위스는 프랑스혁명의 이상주의를 “배반”한 나폴레옹이 건재해야만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모든 세부적인 정치적 차이와 분열을 다 덮어버렸던 나폴레옹이 사라진 다음에는 모든 종류의 공화주의를 포기하고 보수화된 “변절자” 워즈워스의 맨살이 그대로

드리날 수밖에 없었다.

1804년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했을 때, 워즈워스는 한때 자신이 지지했던 프랑스혁명이 “개가 자신의 토사물로 다시 돌아가는(『서곡』 10권 937-38, the dog/Returning to his vomit) 것과 같은 “최후의 치욕”(last opprobrium, 935)을 겪는 것을 목격했다며 극도의 정치적 좌절감을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가 스위스 신화의 영국적 전유가 시인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을 때이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워즈워스가 이즈음에 완성해가고 있었던 1805년 판 『서곡』에서 알프스의 ‘송고’에 힘입어 처음 맞닥뜨린 “상상력”(6권 488-548)을 스노우돈의 ‘영국적 송고’에서 완성된 형태로 다시 만나도록 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인용 문헌

박찬길. 『시인과 혁명』. 서울: 사회평론, 2011.

_____. 「낭만적 엘리트와 애도의 정치학: 셸리의 『애도네이즈』 읽기」. 『19세기 영어권 문학』 18.1 (2014): 31-63.

_____. 「『쾨트라조약에 관하여』에 나타난 워즈워스의 애국심」. 『18세기 영문학』 16.2 (2019): 29-69.

_____. 「워즈워스의 빌둥과 송고: 셸리의 미학으로 『서곡』 읽기」. 『영미문학연구』 41 (2021): 5-62.

Addison, Joseph. *The Tatler No. 161(Thursday, April, 1710) Oxford Scholarly Editions Online*. Oxford: Clarendon Press, 1987. 491-95.

Beckett, J. V. “The Decline of the Small Landowner in Eighteenth- and Nineteenth-Century England: Some Regional Considerations.” *The Agricultural History Review* 30.2 (1982): 97-111.

- Baiao, Helder Mendes, “Myths and utopias in eighteenth century Switzerland. Utopia as a path to reforms.” *Academia.edu*. Richard Price. Web. 28 Feb. 2023.
- Chamber’s Journal. “The Cumberland Statesman.” *Chamber’s Journal* (1858): 137-39.
- Coxe, William. *Travels in Switzerland and in the Country of the Grisons*. Vol 1. London: T. Cadell, 1791.
- Cleve, John Van. “Social Commentary in Haller’s “Die Alpen”.” *Monatshefte* 72.4 (1980): 379-88.
- Cunningham, Hugh. “The Language of Patriotism, 1750-1914.” *History Workshop* 12 (Autumn, 1981): 8-33.
- Dent, Nicholas. *Rousseau*.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 Duffy, Cian. *The Landscapes of the Sublime 1700-1830: Classic Ground*.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3.
- Fraser, Ronald. *Napoleon’s Cursed War: Spanish Popular Resistance in the Peninsular War, 1808-1814*. London & New York: Verso, 2008.
- Haller, Albrecht von. *The poems of Baron Haller*, Trans. Mrs.Howorth (Eighteenth Century Collection Online). London: J. Bell, No. 148, Oxford-Street, Opposite Bond-Street, 1794.
- Hill, Alan G. “Wordsworth and the Two Faces of Machiavelli.” *The Review of English Studies* 123 (1980): 285-304.
- Gill, Stephen. *Wordsworth, A Life*. Oxford: Clarendon Press, 1989.
- Goodwin, Albert. *The Friends of Liberty: The English Democratic Movement in the Age of the French Revolution*. London: Routledge, 2016.
- Gravil, Richard, W. J. B. Owen, and Jane Worthington Smyser. *Concerning the Convention of Cintra: A Critical Edition*. Penrith, England: Humanities Ebooks (HEB), 2009.
- Key, Mark. *William Wordsworth’s Golden Age Theories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1750-1850*. Palgrave: New York, 2001.

- Kelley, Theresa M. *Wordsworth's Revisionary Aesthetics*. Cambridge: Cambridge UP, 1988.
- Kiernan, V. G. *Poets, Politics and the People*. Ed. Harvey J. Kaye. London: Verso, 1989.
- Lerner, Marc H. *A Laboratory of Liberty: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Culture in Republican Switzerland, 1750-1848*. Amsterdam: Brill, 2011.
- Levinson, Marjorie. *Wordsworth's Great Period Poems: Four Essays*. Cambridge, Mass.: Cambridge UP, 1986.
- Lucas, John. *England and Englishness: Ideas of Nationhood in English Poetry: 1688-1900*. London: The Hogarth Press, 1991.
- McGann, Jerome. *The Romantic Ideology: A Critical Investigation*. Chicago: Chicago UP, 1985.
- Moorman, Mary. *William Wordsworth: A Biography: The Later Years 1803-1850*. Oxford: Clarendon Press, 1965.
- Pinion, F. B. *A Wordsworth Chronology*.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8.
- Rousseau, Jean-Jacques. *Julie, or The New Helois. The Collected Writings of Rousseau*. Vol. 6. Trans. Philip Stewart and Jean Vaché. Hanover, New Hampshire: Dartmouth College Press, 1997.
- _____. *The Social Contract*. Trans. Christopher J Betts. Oxford: Oxford UP, 2008.
- _____. *A Discourse on the Origin of Inequality*. Trans. G.d.h. Cole. Neeland Media LLC, 2018.
- Sales, Roger. *English Literature in History, 1780-1850*.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3.
- Schama, Simon. *Landscape and Memory*. New York: Vintage Books, 1995.
- Thompson, Edward Palmer. *The Romantics: England in Revolutionary Age*. Intro. Dorothy Thompson. New York: The New Press, 1997.

- Vincent, Patrick. "Visionary Republics: Virtual Representations of Switzerland and Wordsworth's Lake District." *Romanticism, Rousseau, Switzerland: New Prospect*. Eds. Angel Esterhammer, Diane Piccitto, and Patrick Vincent. Basingstoke, England: Palgrave Macmillan, 2015. 132-149.
- _____. "Comparative Landscapes: The Alps Vs. the Lake District in Wordsworth's Prose and Poetry." *Colloquium Helveticum: Cahiers Suisses de Littérature Comparée/Schweizer Hefte für Allgemeine und Vergleichende Literaturwissenschaft/Quaderni Svizzeri di Letteratura Generale e Comparata* 38 (2007): 319-38.
- _____. "Sleep or Death? Republicanism in *The Convention of Cintra*." *Grasmere 2008*. Ed. Grivil, R. Penrith, England: Humanities Ebooks, 2009. 83-94.
- _____. "Enchanted Ground? Rousseau, Republicanism and Switzerland." *Jean-Jacques Rousseau and British Romanticism: Gender and Selfhood, Politics and Nation*. Eds. & Intro. Russell Goulbourne and David Higgins.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7. 91-111.
- _____. "Sons of Nature: The Bourgeois Pursuit of Happiness in the Swiss Alps and Wordsworth's Lake District." Eds. Rahel Orgis and Matthias Heim. Basingstoke, England: Palgrave Macmillan, 2018. 147-170.
- _____. *Romanticism, Republicanism, and the Swiss Myth*.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P, 2023.
- Wiley, Michael. *Romantic Geography: Wordsworth and Anglo-European Space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 Williams, Helen Maria. *A View of The Present State of The Governments and Manners of Those Cantons: With Comparative Sketches of The Present State of Paris*. Vol 1. London: G.G. And J. Robinson, Paternoster-Row, 1798.
- Williams, Raymond. *The Long Revolution*.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in association with Chatto & Windus, 1965, c1961.

- Wordsworth, William. *The Letters of William and Dorothy Wordsworth*. Vol. 1. Ed. Ernest de Selincourt. Oxford: Clarendon, 1962.
- _____. *The Prelude: A Parellel Text*. Ed. J. C. Maxwell.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1.
- _____. *The Prose Works of William Wordsworth*. Vol. 1-3. Ed. W. J. B. Owen and Jane Worthington Smyser. Oxford: Clarendon Press, 1974.
- _____. *The Letters of William and Dorothy Wordsworth*. Vol. 4. Eds. Alan Geoffrey Hill(I) and Ernest de Selincourt(II). Oxford: Clarendon, 1978.
- _____. *Descriptive Sketches(The Cornell Wordsworth)*. Eds. Eric Birdsall and Paul M. Zall. Ithaca: Cornell UP, 1984.
- _____. *Lyrical Ballads, and Other Poems, 1797-1800(The Cornell Wordsworth)*. Eds. James Butler and Karen Green. Ithaca: Cornell UP, 1992.

Wordsworth's 'Sublime' Republic: the Politics of Swiss Myth

Abstract

Chankil Park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idea of a republic in the Wordsworth's poetic career in relation with the Swiss myth. The Swiss myth was a popular belief that an ideal democracy is being practiced in the small communities located in the mountainous areas of the Alps each one of which could be called a mini republic, a microcosm of the ancient republics such as Athene or Sparta. Such small republics were peopled by the native inhabitants naturally equipped with civic virtues such as patriotism, a spirit of independence, frugality, and self-government all of which were grown in constant contact with the sublime landscape of the Alps. Wordsworth began his poetic career publishing a topographical poem *Descriptive Sketches* based upon his trip to the Alps which was made in 1790 under the charm of Switzerland as a country of pure democracy and sublime landscape. The Swiss myth, along with its aesthetic and political ramification, was always the source of inspiration in Wordsworth's public life particularly in relation with his political sentiments. In this paper, I am trying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the Swiss myth in the transformation of Wordsworth's political standpoint. I start with E. P. Thompson's sincere question about Wordsworth's apparently groundless optimism which managed to survive after all those traumas of political disenchantment. The secret, I argue, is that the Swiss myth provided him with a spiritual model with which to build an alternative Swiss in his native Lake District. Wordsworth's ambitious project failed, of course, leaving the opprobrium of political apostasy only. It was undeniably an apostasy indeed after a certain point in his life, but his impossible dream for an alternative Swiss in the Lake District, I would like to argue, was dreamed due to his

desperate wish to keep his republican idealism alive by building a ‘sublime’ republic of his own in whatever terms.

- ▶ 주제어: 워즈워스(Wordsworth), 공화주의(Republicanism), 스위스 신화(Swiss Myth), 숭고(sublime), 변절(Apostasy)

박찬길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논문투고일(Received): 2023년 3월 02일

논문심사일(Reviewed): 2023년 3월 17일

게재확정일(Accepted): 2023년 3월 20일